

21세기 전문인 키우기 위한 산학협동 모색

‘한국출판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출판 포럼 지상 중계

한국출판연구소(이사장 김경희)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7월 15일 ‘21세기 출판 문화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방안’이라는 주제로 출판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영표 신구전문대 교수가 ‘출판계의 산학협동과 개선방안’을, 허창성 평화출판사 대표가 ‘멀티미디어 시대의 출판산업과 산학협동의 과제’를 각각 발표하였다. 이어 토론회에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 김주팔 회장, 대한인쇄문화협회 홍우동 부회장, 대전전문대 이종국 교수, 대한출판문화협회 정종진 사무국장, 청림출판 고영수 대표, 지경사의 김병준 대표 등 출판계와 각 대학 출판학과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주제발표 내용과 토론회 주요 발언을 요약해 실는다.

‘출판계의 산학협동과 개선방안’

전영표(신구전문대 출판학과 교수)——근래의 출판환경은 전자산업의 발달이라는 외적인 조건 외에도 WTO의 출범과 지적재산권 관련협정인 TRIPs 등으로 점점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학협동은 이와 같은 어려움에 큰 역할을 하리라 생각한다. 산업교육진흥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부터 전문대학의 출판전공 학생들과 출판계 사이에는 인적 교류를 통한 산학협동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산학협동의 실태는 대학의 일방적인 산학에 의한, 현장실습생들의 수동적이고 의무적인 직업교육에 그치고 있다.

특히 출판업계로부터의 학술활동비 보조



지난 7월 15일 출협 강당에서 열린 한국출판연구소 포럼.

나 연구비 보조 등 물질 교류를 통한 연구 개발의 산학협동은 기대하기가 어려운데, 현장실습 외에 다양한 형태가 절실히 요구된다. 주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출판현장인의 재교육 역시 전문성을 갖춘 대학을 활용하도록 제안한다. 미국 등에서는 신문사와 방송국에 인턴십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출판계 역시 대학의 인력이 활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산학협동의 과제’

허창성(평화출판사 대표)——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산학협동은 출판산업계나 교육계 모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출판산업계는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부족과 노동현장과

교육정보의 연계노력의 부족을 재인식해야 하며, 교육계 역시 노동현장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정보를 얼마나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한다.

멀티미디어 시대를 맞고 있는 지금 교육계의 역할은 더 크다. 이제까지의 단순한 기능교육이나 진부한 교양교육을 벗어나 창의성 있는 기획과 편집은 물론 출판제작에 소용되는 첨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두루 갖춘 전문인을 키워내야 한다.

출판산업계 역시 그동안의 무관심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산학협동을 분야별로 지원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첨단기술 교육을 할 수 있는 과감한 투자와 법제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종국(대전전문대 교수)——현재 출판산

업분야에서는 산학협동에 체계조차 없는 형편이다. 출판업계는 출판학과에서 배출한 인력수용에 소극적이고 학계의 이론은 진부하다. 출판업계는 출판전문연구자의 연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예비인력을 확충하고 재단설립 등으로 미래 출판전문인 양성에 힘써야 한다.

체계적인 인력양성 체계 마련해야

김병준(지경사 대표)——학과와 업계가 서로의 요구를 이해하지 못해 출판전문인력의 양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단순한 기술자가 아닌 창의적인 기획자를 원하고 있다. 급변하는 출판환경에 따라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학계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기대한다.

홍우동(대한인쇄문화협회 부회장)——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이 따로 이루어지는 것이 큰 문제다. 출판관련산업 설비기기의 변화가 몹시 빠른데, 출판업계에서는 그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고 교육계는 관심이 없다는 인상이다. 또 출판환경의 변화가 심해서인지 원칙과 뿌리가 없어 불량품이 양산되고 있다. 기본적인 교육 역시 소홀히해서는 안 된다.

정종진(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총체적 협력관계를 이뤄야 현재의 출판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산(産)이나 학(學)이나 각론은 그런대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종합해낸 성과가 없다는 게 문제다.

——정리 : 이현주 기자

주요취급간행물

- 신 문 : NEW YORK TIMES/WALL STREET JOURNAL
WASHINGTON POST/LE MONDE/LE FIGARO
FRANKFURTER ALLGEMEINE/HANDELSBLATT
DIE WELT/DIE ZEIT/SOUTH CHINA MORNING POST
ARAB NEWS 외
- 시 사 : NEWSWEEK/PEOPLE/FORBES/BUSINESS WEEK/LE POINT
L'EXPRESS/PARIS MATCH/LE NOUVEL OBSERVATEUR
DER SPIEGEL/STERN/FOCUS/WIRTSCHAFTS WOCHE 외
- 컴퓨터 : COMPUTER GAMING WORLD/COMPUTER SHOPPER
GAME PRO/UNIX REVIEW/BYTE/PC WORLD
PUBLISH/INTERACTIVITY/VIDEO GAMES 외 다수
- 패 션 : VOGUE/ELLE/COSMOPOLITAN/HARPER'S BAZAAR
VOGUE PARIS/MARIE CLAIRE/DEPECHE MODE
EMPERIO ARMANI/FASHION LINE/NEXT FASHION 외
- 기 타 : INTERVIEW/ENTERTAINMENT/VARIETY /BILLBOARD
ROLLING STONE/SPORTS ILLUSTRATED/GOLF DIGEST 외

세계의 신문·잡지

세계화
정보화
지식화를
리드하는 GREEN 기업

SINCE 1963
韓國出版貿易(株)
Korea Overseas Publications Inc.

정기 구독 안내

- 매일 항공편 직수입 체계로 보내드립니다.
- 가격이 인상되어도 주문시 가격으로 구독하시게 됩니다.
- 원하시는 분께는 「세계의 신문·잡지」 책자와 SAMPLE을 보내 드립니다.
- 전화주문 : (02) 735-5401/3
- FAX주문 : (02) 736-3463, 735-5404
- 우편주문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60